

'동아시아 근대의 고뇌' 루쉰과의 대화

루쉰의 내면 풍경 속에서 펼쳐는 한 중문학자의 몽상

전형준

충북대 교수 · 중문학



**"중국의 근대는
고뇌 없이는 그 속내를
조금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소?
나는 그 고뇌를 뚫고갈
길의 실마리를
니체와 마르크스에게서
보았소."**

루쉰.

자정이 지난 지도 오래인 캠퍼스는 온통 어둠과 적막에 휩싸여 있다. 환하게 불을 밝힌 한 연구실에는 아직 늦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더 이상 젊지도 않은 한 중문학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몽롱한 가운데, 그의 눈앞에 해변의 초록빛 모래밭이 펼쳐진다. 그 위의 쪽빛 하늘에는 황금빛 둥근 달이 걸려 있다. 이는 원래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의 작중화자 '쑤'의 내면 풍경이 아닌가. 처음 그 내면 풍경 속에는 목에 은목걸이를 차고 손에 쇠작살을 들고 오소리를 힘껏 찌르는 열한두 살 된 소년 '룬투'가 있었고 나중에 '쑤'가 고향을 떠날 때는 사람 없는 빈 풍경만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 해변 초록빛 수박밭에는 하얀 장삼을 입은 50대 초반의 키 작은 남자가 묵묵히 서 있다. 짧은 머리, 짙은 콧수염, 숨은 병을 암시하는 약간 훌쩍한 볼따구니…… '쑤'의 내면 풍경 속에 루쉰 자신이 들어온 것이다.

1906년 일본 유학중 의학을 공부하다가 중국인의 마비된 정신에 충격을 받고 문학으로 전향한 문학청년. 혁명적 열정에 불타다가 신해혁명의 실패로 좌절하여 금석문 연구에 몰두한 교육부 관리. 1918년 후배들의 신문학운동에 호응하여 중국 최초의 근대소설 〈광인일기〉를 쓴 작가. 20년대 북경 군벌 정부의 독재

에 맞서 싸운 비판적 지식인. 지명수배를 피해 옮겨간 상해에서 젊은 프로문학가들에게 매도당한 소시민 작가. 1930년 반(反)국민당의 광범위한 문예계 통일전선으로 결성된 좌익작가연맹(약칭 좌련)의 공동 대표. 1936년 문예계 좌우 합작의 방법을 놓고 프로 헤게모니의 관철을 위해 병상에서 투쟁을 벌이다가 지병인 폐결핵으로 타계한 프로문학운동가. 마오쩌둥에 의해 위대한 문학인이자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혁명가이며 그의 방향이 바로 중국 민족 신문화의 방향이라고 추앙받고서부터 문화대혁명이 끝나기까지 의심받지 않는 권위로 작동했던 마오쩌둥주의의 문화적 상징. 80년대 이후 비로소 신화(神話)로부터 벗어나 그 진정한 면모가 조명되고 있는 고뇌하는 동아시아의 근대인.

문득 돌아보니, 루쉰이 들어와 있는 풍경 속에서 한국의 중문학자도 어느새 들어와 있다. 한국의 중문학자가 입을 연다.

중문학자 — 루쉰 선생이시죠? 선생을 만나게 되다니 꿈만 같군요.

루쉰 — 그대는 요즘 내 속면을 방해하는자들 중 하나라고. 호출은 잦는데 막상 만나려고 가보면 다들 판청이라 나만 잠을 축냈지. 그대도 늘 판청만 부리더니 오늘은 웬일이요?

중문학자 — …….

루쉰 — 궁금한 게 많겠지. 하지만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단 말이오. 생전에도 그랬지만 죽은 뒤에는 더 그렇소. 요즘 들어 인간 루쉰 운운하면서 나를 내적 모순으로 보는 데는 우선 나 자신이 혼란스럽소. 하기가 자신의 무의식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만…… 그대는 〈관문 밖으로(出關)〉에 대한 나의 자기 해명을 두고 무의식적 자기 기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소. 그 작품에 그려진 노자(老子)의 고독과 비애가 작가인 나의 것이라고 하며 나를 비난한 사람이 추원투어였는데, 추의 그 비난이 나는 싫었던 게요. 그래서 내작의(作意)는 노자 풍자였다고 공언했던 것인데, 그대가 그것을 '휴식과 위안을 갈구하는 실존적 진실'이라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도 같소.

중문학자 — 그 자기 기만이라는 게 꼭 비난의 뜻으로 말할 건 아닙니다. 원래 글쓰기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층 심오한 어떤 것이 생성되거나 발현될 수 있겠지요. 제 경우는 선생 내면의 절망·좌절·허무·회의·어둠 같은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투쟁과 비수'

루쉰 — 나 자신이 뚜렷이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소. "희망의 허망함은 절망과 같다"라거나 "나는 어둠만이 실재라고 느낀다"는 식으로 말이오. 하지만 나는 투항주의나 패배주의, 비관주의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오. 오히려 전투주의에 가깝다고 해야 할 거요.

중문학자 — 그렇지요. 그런 것들과의 운명적인 전투를 자각적으로 수행하는 것. 여기에는 일종의 실존주의가 있지요. 사람이니까 항상 피로가 동반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의 존재를 외면하거나 그에 대해 아예 무지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낙관주의는 허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생에 대한 마오주의적 규정은 선생의 전투성을 허망한 낙관주의 속으로 추락시켜버렸죠. 그 귀결이 문화혁명이었고요.

루쉰 — 동의하오. 하지만 투항주의나 패배주의, 비관주의 같은 것들보다는 차라리 그쪽이 낫다고 해야 하지 않겠소?

중문학자 — 물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생의 산문 선집을 엮으면서 그 제목을 《투쟁과 비수》라고 붙였던 겁니다. 적의 심장을 향해 던지는 투쟁과 자기 속의 적을 찌르는 비수. 마오주의의 전투성이 비수 없는 투쟁이라면 선생의 그것은 투쟁과 비수가 한몸을 이루는 그런 전투성이지요.

저는 요즘 선생을 동아시아의 근대와 근대극복이라는 지평 속에서 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서양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억압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 그 억압을 배제하고 중국적인 것의 순수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는데, 선생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쉰 — 그렇소. 이른바 중국적인 것은 내가 보기에 봉건이고 우매고 마비일 뿐이니까 거기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소. 서양적인 것, 이게 실은 자본주의적 근대인데, 이것 또한 파탄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여기에도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요. 나의 저항은 양쪽 모두에 대한 것이었고 새로운 세계를 그 저항을 통해 생성해나가는 것이었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나는 억압을 받아들여 신경증에 걸리기도 싫었고 억압을 배제해서 분열증에 걸리기도 싫었던 거요.

중문학자 —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고뇌의 늪을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요.

루쉰 — 고뇌라! 중국의 근대는, 그대가 요즘 씨름하는 문제를 감안한다면 동아시아의 근대라고 바꿔 말하는 게 좋기도 하겠는데, 여하튼 중국의 근대는 고뇌 없이는 그 속내를 조금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소? 나는 그 고뇌를 뚫고 나갈 길의 실마리를 두 사람에게서 보았소. 그대도 잘 알다시피 하나는 니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요. 젊었을 때는 니체에게서, 나이 들어서 마르크스에게서 힌트를 얻었던 게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만년에 도 니체를 완전히 버렸던 건 아니었던 것도 같고…….

마르크스는 여전히 가능성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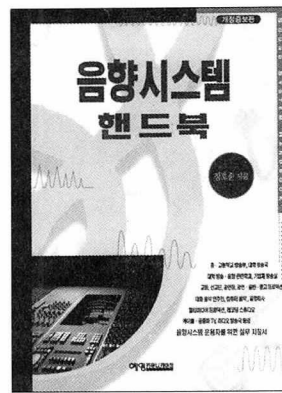
중문학자 — 이제는 마르크스가 한물 간지 오래라는 것, 아시죠? 요즘은 니체의 후계자들이 판을 치고 있지요. 선생을 보는 눈도 선생 안의 마르크스는 부정하고 선생 안의 니체를

예영커뮤니케이션은
독자들이 건강한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 매니아들과 음향시스템 운영자들의 인기서

음향시스템 핸드북

장호준/B5/240쪽/10,000원



외국에 비해 음향에 관한 뚜렷한 전문 교육 시설이나 전문 서적이 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방송실에서부터 교회, 공연장, 기업체, 방송국, 음반 녹음실, 개인 작업실 등 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음향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서로 저자의 수 년간의 경험으로, 기기의 사용설명서에 의해서 음향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쉽고 논리적인 이해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돈 걱정 없는 가정

래리 버켓/조성표/A5신/304쪽/7,000원/CUP



최대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신용카드 사용, 예산 수립, 퇴직 계획의 수립, 자녀들의 재정 훈련, 투자 비결 등 재정 사용의 실제적인 측면을 다룬다.

호칭과 지칭 예절

류재봉/A5신/424쪽/10,000원, 13,000원(양장)



이 책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호칭과 지칭을 써야할지 궁금해 하는 모든 사람이 쉽게 찾아보고 익힐 수 있도록 쓰여졌다. 흔쾌해진 호칭과 지칭에 대한 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날 좋은 사람과 함께

황연옥/A5신/232쪽/7,000원



흔들리는 가정이 늘어나는 요즘 이 시대의 학부모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절절히 느끼게 하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진솔한 이야기. 전편에 흐르는 감동이 고향의 숲 속을 거닐 때처럼 안온하고 평안함을 느끼게 한다.

웃음건강학

김용운/A5신/224쪽/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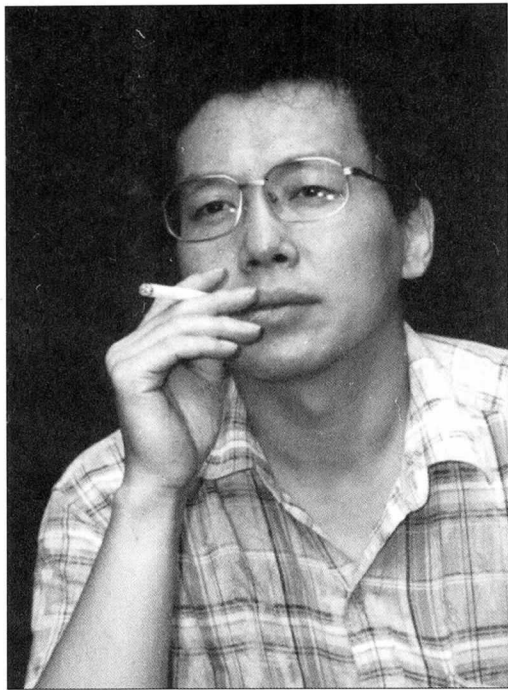


놀라운 웃음요법의 실재를 파헤친 감동의 최신 건강 리포트. 이 책은 웃음 넘치는 생활, 웃음 가득한 인생, 건강한 하루를 여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예영커뮤니케이션

100-616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661
출판부 T.267-0161~4 출판유통사업무부 T.325-7971

“저는 요즘 선생을 동아시아의 근대와 근대의 극복이라는 지평 속에서 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서양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억압과 중국적인 것의 순수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선생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준 교수.

긍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쉰 — 그건 잘못이요. 누구 말따마나 마르크스는 여전히 가능성의 중심이고, 또 그래야 하오. 그 가능성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처투성이로 만든 자들, 마르크스의 후예를 자처하던 자들, 그들이 문체인 게지. 지금 바로 세계자본의 농간에 동아시아 전체가 혹독하게 당하고 있으면서 마르크스를 전면 부정하니! 세계자본이란 게 대체 뭐요? 요즘 보니 그거 천박한 카지노자본주의에 불과하던데……. 카지노판에 끼어든 이상 베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투는 어디 갔지? 전사(戰士)는 카지노판 안에 못 들어오잖소?

중문학자 — 분명한 건 전투가 훨씬 더 난해해졌다는 겁니다. 선생 생전의 상황에서는 자본주의적 근대를 극복하면서 제국주의도 식민지도 아닌 제3의 근대를 생성하는 길이 마르크스를 경유해서 열려 있었죠. 지금 그 길은 단절했습니다. 탈근대의 풍문만 횡행하고 그 풍문 속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가 마구 뒤섞여 버린 세계시장만이 거대한 공룡이 되어 전지구를 휘감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더구나 선생의 조국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천민자본주의의 온갖 사회악이 팽배하고 있고 그 와중에 중화주의까지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은 이 새로운 중

화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크스가 자신의 서양중심주의에 맹목이었듯이 선생도 중화주의에 둔감하신 건 아닌가요? 선생도 티벳은 북수민족 국가인 중국의 엄연한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루쉰 — …….

중문학자 —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중국에 선생의 진정한 제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루쉰 — 그대가 아직 못 만나봤는지는 몰라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내 후배들이 결코 적지만은 않소. 죽은 루쉰과도 대화를 하는데 산 그들과 어찌 대화를 못하겠소?

중문학자 — 그렇겠소? 하여간 “물에 빠진 개는 몽둥이로 때려라”라는 선생의 말씀은 천고의 명언이었습니다.

루쉰 — …….

중문학자의 뜬금없는 마지막 말에 루쉰은 방긱이 미소지으며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는다. 죽은 자의 손에도 온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중문학자는 난생 처음으로 깨닫는다. 초록빛 모래밭을 비추는 황금빛 둥근 달은 여전히 밝다. ❖